마음바다에 번뇌물결 쉬면 '해인삼매'

월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⑪

◇자애로운 눈길로 바다를 굽어보고 있는 낙산사 해수관음상.

◇죽어서라도 동해 용왕이 돼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유해가 안치된 경주 감포 앞바다 대왕암. 불교에서의 용은 불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초월적 존재로 묘사된다.

"바다는 관음보살 상주 도량"
용은 호국·호법신으로 등장
반야용선, 중생 극락길 인도

■불교미술에 나타난 용

이문 법당지붕 조각 火魔 눌러
용뉴 용틀임 형상의 범종고리

불교에서의 용조각이나 그림은 용도에 따라 뚜렷한 성격을 띠고 있어 흥미롭다. 법당의 지붕위에 장식된 용은 이문(螭吻)이라 해 목조건축물에서 가장 우려되는 불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범종의 용뉴에 조각된 용은 바다의 고래를 무서워해 고래 모양의 당목으로 종을 치면 우렁차고 힘차게 우는 포뢰(蒲牢)로 돼 있다. 탑비에 조각된 비희(赑屭)는 무거운 것 지기를 좋아하고, 산예(狻猊)는 연기와 불을 좋아해 향완에, 공하(蚣蝦)는 물을 좋아해 다리의 기둥에 새기고 있다.

◇용두보당.

■ 범종의 용뉴: 범종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용뉴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통일신라시대의 용은 종에 몸을 굳게 밀착시켜 살아 움직이는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고려의 용은 맥이 풀린 듯 음관에 몸통을 기대고 있다. 조선초기의 종은 두 마리의 용이 서로 여의주를 사이에 두고 희롱하는 모습을 띠며, 조선후기의 용은 몸체에 비해 엄청나게 큰 얼굴에 성글게 난 뿌드렁이 등이 익살스럽기만 하다.

■ 고달사지 원종대사혜진탑비(보물 6호)의 용두: 앞을 응시하는 큰 눈과 꽉 다문 입, 뒤로 힘차게 휜 갈기 등 박진감이 넘친다. 조각이 대담무쌍하며 한국 탑비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 용두보당(국보 136호): 금속으로 제작된 고려시대의 당간지주로 당간의 정상에 용두를 조각, 매우 생동감있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높이 73.8㎝.

〈대방광불화엄경〉 중에 '해인삼매(海印三昧)'라는 말이 있다. 가야산 해인사의 이름도 여기서 유래한다. 화엄경의 세계관은 일심법계로 요약된다. 즉 물들이 없이 진실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영원한 진리의 세계가 바로 법계, 연화장세계라는 것이다. 진실된 지혜의 눈이란 청정무구하고 원만무애한 지극한 마음이며, 이것이 곧 해인삼매의 경지이다. 삼라만상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세계로 나타내는 커다란 바다의 도량이다.

자극한 마음을 왜 바다에 비유하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한량없는 마음의 바다에서 일고 있는 무명(無明)의 바람을 접고, 망령된 번뇌의 물결이 쉬어야만 본래의 진실된 마음이 드러난다고 한다.

바다와 용

바다와 인접한 사찰 창건설화에는 언제나 관음보살이 등장한다. 〈화엄경〉에 의하면 관세음보살은 남쪽 바닷가 광명산에 머물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관음신앙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 유명한 조사(祖師)들과 관련된 사찰창건설화에도 관음보살이나 용, 용왕이 많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의상대사가 동해용으로부터 수정염주와 여의보주를 얻어 관음보살을 친견한 후 낙산사를 창건했다는 이야기이다.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 기도중 문수보살에게서 부처님진신사리와 가사를 받고 귀국, 아홉마리의 독룡들을 설법으로써 항복받고 연못을 메워 그곳에 금강계단을 쌓았다. 또 통도사에는 '해장보각(海藏寶閣)'이 있다. 개산조(開山祖) 자장율사를 모신 조사당으로 자장율사 영정 외에도 고려대장경판본이 가득차 있다. '해장보각'이란 이름 그대로 대장경을 바닷속 용궁에 보관해 뒀음을 의미한다. 신라고승 명랑법사는 해룡(海龍)으로부터, 보양선사는 서해 용왕의 아들 이목을 데리고 돌아와 작갑사를, 진표율사는 용왕으로부터 옥과 가사를 받고 그 권속의 도움으로 금산사를 중창하였다.

이처럼 용왕·용신은 천룡팔부(天龍八部·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의 하나로 불법에 귀의하여 정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경전에 보면 '난타'와 '우파난타라'라는 용왕은 부처님이 태어나자 한줄기는 따뜻하고 한줄기는 차가운 청정수를 토해내 탄생불의 몸을 씻겨 줬다고 한다.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 강화 보문사는 우리나라 3대 관음기도도량으로 유명하다. 이 사찰들의 공통된 특징은 일망무제의 시원한 바다를 절마당으로 끌고 있다는 것으로 관음보살의 진신이 이곳에 상주한다는 믿음에서 연유한다. 특히 관음보살이 거주한다는 인도의 보타낙가산(補陀洛迦山)에서 이름을 따온 낙산사는 의상대사가 동해 용으로부터 수정염주와 여의보주를 얻어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난 후 창건한 관음 제1도량이다. 이후부터 바다는 우리나라 불교와 인연을 맺어 관음신앙의 도량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수월관음도

〈화엄경〉에서 관세음보살은 영원한 구도자 선재동자가 남쪽 바다에 있는 보타낙가산에 이르러 만나는 28번째 선지식으로 등장한다. 즉 세간의 구제는 물론 정신적 구원, 곧 영원한 해탈의 경지인 법계로의 진실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고려불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수월관음도에 잘 묘사돼 있다. 맑고 깨끗한 물가에 관세음보살이 결가부좌하고 앉아 중생을 위해 설법하고 있으며, 때때로 선재동자의 방문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수월관음도는 합굴, 염주, 보주, 그리고 절터를 예시한 한쌍의 청죽(靑竹) 등 의상대사의 관음친견과 관련된 것들이 그대로 표현돼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반야용선

흔히 법당을 중생들이 극락갈 때 타고 가는 반야용선에 비유한다. 반야의 지혜에 의지해 고뇌의 차안(此岸)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사찰의 벽화나 그림에서 보면 반야용선은 부처님과 탑을 싣고 있으며 극락으로 가는 중생들로 가득하다. 그 앞부분은 용의 머리로 장식해 용선을 이끄는 구실을 한다. 바닷가에 접해있는 사찰의 법당은 대개 반야용선을 상징한다. 여수 흥국사는 그 대표적인 예로 기단은 바다를 상징해 거북 게 해초 등 여러 바다생물을 조각하고 정면계단 양쪽에는 용을 새겨 호위하는 형태를 취했다. 또 창녕 관룡사의 경우는 거대한 바위가 반야용선이다. 천연의 바위가 배 모양을 그대로 닮았으며, 옛 신라인들은 반야용선처럼 이곳 뱃머리쪽에 부처님 한 분을 모셨다. 험한 물길을 부처님 모시고 만전히 가라는 뜻이다.

■호국룡

〈삼국유사〉에는 용이 불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초월자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으며, 사찰의 법당이나 탑 등에 무수히 조각된 용도 모두 호법신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불교는 호법룡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경주 황룡사는 553년 진흥왕이 궁궐을 지으려다 황룡(黃龍)이 나타나 절로 고쳐 짓는데, 이 황룡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호법룡으로 이후 자장율사에 의해 용왕의 아들로 법왕의 명을 받아 황룡사를 지키고 있음이 밝혀진다. 또 감은사는 죽어서라도 동해 용왕이 돼 왜구의 침략을 막겠다는 문무왕의 호국정신이 깃든 곳으로 금당 아래에는 용으로 화현한 문무왕이 들어와 쉴 수 있도록 배려한 유구가 지금도 남아있다. 이밖에 영주 부석사의 선묘설화, 울산 망해사의 처용설화 등 사찰의 창건연기에서 호국룡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웅전은 용이 있음으로 화려하면서 위엄을 갖추게 된다.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혜진탑비의 용두. 금방이라도 살아움직일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조각이 뛰어나다.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반야용선. 통도사 극락보전 바깥 벽화. 지방유형문화재 194호.

은기석 기자(gsyoon@buddhapia.com)

불·자·들·의·필·독·잡·지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8년 여름 호 제6호(통권26호)

지상중계 / 불교방송 교리강좌 회향법회
박성배 교수에게 듣는다 ③
불교, 어떻게 믿고 닦을 것인가

컬러화보 /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⑥
복장물에 담긴 서원

불교계진단 ⑤ / 우리의 교단체계, 이대로 좋은가
조계종의 교단제도와 운영의 문제
한국불교의 교단체계와 세계불교국가의 예
조계종 제도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화광 / 음악(교성곡 웅성)
미술(정비파 석굴암 판화전)

인터넷 불교 / 달마가 인터넷으로 간 까닭은?

불교문화의 현장 / 팔만대장경 주제음악 발표회

현대인을 위한 새로운 수행법
'아바타' 프로그램과 사람이 사는 길

山寺古談 ② / 부처님의 손길처럼 따스한
성철 큰스님

특집
세태분석 / 미스터리물에 대한 불교적 해석
환생, 귀신, 불가사의한 체험에 대한 불교적 해석
불자로서 풍수사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
수맥 붐! 미신인가, 과학인가
점과 사주에 대한 불교적 해석

특별기획 / 세계의 사상가와 불교 ④
동서양의 정신세계를 넘나든 보르헤스
그의 삶, 그리고 불교와 포스트모더니즘을 조명하고 주요한 작품 몇 편을 소개한다

세계의 불교
싱가폴 불교의 현장- 윤회의 길, 인간의 길

한국의 미 ④ / 한국의 종이 (韓紙)

생명과 불교 / 뇌사, 장기이식에 대한 불교의 비판

생태탐사기 / 생태적 관점에서 본 능가산 개암사

고전산책 /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불이論
백파영의 수필 한 편과 편지글(추사의 김정희書)

발굴 / 홍인표 거사의 염불왕생법
정토 경, 논, 집 / 약사여래, 지장보살

불교와 문화 정기구독 신청 문의 Tel 02 - 719 - 1855, Fax 02 - 719 - 5052

생전예수재 법회시 설법자료, 법보시 책 및 예수재용품 보급안내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생전예수재의 공덕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빚과 량,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예수재 행사 동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으며 불자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신국판 72페이지 ⊙ 법보시 특가 1,500원

생전예수재 용품(1,500원, 2,000원)

감로출판사 ☎ (02)723-4306~7, 팩스 : (02)738-8682

봉축위원회 지정업체 여름 불교 학교 현수막 제작 보급

일시 : ○월 ○일~○월 ○일 장소 : ○○사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
대한불교 △△종 ○○사

▲ 번캡(모자)

▲ 불자의 집 교패 크기 5.5cm×7cm
▲ 부채 크기 21.5cm×29.5cm
▲ 어린이용 T셔츠 (양면 20수)
▲ 성인용 T셔츠 (실켓 60수)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02)723-4306~7, 팩스 : (02)738-8682